

제1주제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박 근 수

(배재대학교 교수)

#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박근수 | 배재대학교 교수

## I. 서론

2010 대백제전은 충청남도에서 백제문화를 홍보하고 관광 상품으로 연출하기 위한 행사이다. 백제문화권 중 특히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백제문화의 가치 확산과 국제관광콘텐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2010 대백제전을 통하여 개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 기존의 많은 메가이벤트 행사들이 행사기간 중에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지만 행사기간 후에는 행사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0 대백제전’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사효과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관광인프라를 행사기간 중, 그리고 행사기간 후에 운용할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2010 대백제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광수입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행사개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0 대백제전의 개요를 분석하고 국내외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010 대백제전’은 단순히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기간 전, 행사기간 중, 행사기간후의 지속적인 행사효과를 창출해야 함을 기본전제로 공주시의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2010 대백제전의 개요분석

이 부분에서는 '2010 대백제전 타당성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0 대백제전의 개요분석과 개최예정지역중 공주시의 지역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2010 대백제전의 개요 (2010 대백제전 타당성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1) 대백제전의 목표

<표 1> 대백제전의 목표

지역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제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li> <li>지역문화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li> <li>백제문화의 새로운 발전모델 형성을 통한 신지역 문화 창조</li> <li>백제문화권역의 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 형성</li> <li>지역의 정체성 확립</li> </ul>
국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제문화의 예술성, 우수성, 다양성과 국제성을 드러내 부여와 공주를 유네스코 &lt;세계문화유산&gt; 등재 실현 및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li> <li>상대적으로 소외된 백제권, 내륙권의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li> <li>숨겨진 백제역사,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접근을 통한 고대사 정리</li> <li>대규모 국책사업인 &lt;백제역사재현단지&gt;의 국민적 홍보</li> <li>대규모 정책사업인 역사문화도시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li> </ul>
국제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백제전을 통한 백제의 존재성을 세계에 알림</li> <li>유네스코 &lt;세계문화유산&gt; 등재 및 세계역사도시연맹가입 등을 통한 한국사에 대한 세계적 관심 유도</li> <li>대백제전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준 홍보</li> <li>재미, 볼거리를 추구하는 기존의 테마마크 컨셉과 다른 체험과 교육,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향유하는 &lt;백제역사재현단지&gt;를 세계에 소개 및 관광 유도</li> </ul>
행사 자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 대백제전의 역량, 명성, 이미지가 이후 백제문화제에 계승발전 되어, 백제문화제가 세계적 축제가 되는데 기여</li> <li>백제문화제의 콘텐츠 개발 및 발전에 도움</li> <li>백제권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li> </ul>

## **(2) 대백제전의 필요성**

### **1) 지역균형발전**

- 신라문화의 중심지 경주가, 편의시설 확충, 도로 및 도시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도시로 위상을 갖춘 반면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공주와 부여는 고도라는 명칭만 남아 있음
-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등 도시다운 공주와 부여 모습 필요
- 도로환경 정비 및 외부지역과의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필요

### **2) 정체성 확립**

- 백제문화라는 공통의 주제와 비전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필요
- 백제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백제다움 찾기
- 백제문화 및 문화재의 파악 및 발굴 그리고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백제문화권 개발

### **3) 지역민의 소외감 배려 및 희망 주기**

- 개발로부터 도외시 된 지역민의 소외감 회복 필요
-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를 통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자신감 부여
- 단기적,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민 공통의 노력과 희망

### **4) 백제 문화의 세계화와 지역의 국제화**

- 지역문화로 머물러 있던 백제문화의 세계화
- 침체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제화



## 5) 지역 이미지 향상

- 도시 발전을 통한 전통적인 옛 고도라는 과거 이미지 탈피
- 지역민의 자신감과 소속감을 통한 활력, 생기, 부활, 창조 등 발전적, 긍정적, 미래지향적 이미지 찾기

## 6) 국가 문화역량 강화

- 고대 백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역사문화국가 이미지 강화
- 고대 백제 홍보와 국가 역사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교육, 문화, 역사 그리고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매력도 확대

## (3) 대백제전의 기대효과

-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증대
-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국·내외적 홍보
- 역사, 문화, 관광 등 백제에 관한 관심의 증대
-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미래 산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 및 인력 양성
- 국제적 메가 이벤트 준비과정과 실행을 통한 새로운 목표 및 희망 공유를 통한 지역민의 화합
- 백제, 백제문화, 대백제전이라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 및 이미지 업그레이드

### (3) 대백제전 바로보기



#### (1) 대백제전이란?

- 국제적 규모와 수준의 학술과 문화회의 :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유네스코 포럼, 세계불교문화 교류회의 등
- 지역민,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큰 잔치 : 독특한 백제문화 프로그램, 국제적 이벤트,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등
- 문화, 역사, 창조산업 정보와 콘텐츠의 교류 : 한중일 메가 이벤트 연계, 세계역사도시간의 문화교류, 백제 네트워크의 결성 등

#### 1) 백제 부활 운동

- 과거 찬란했던 백제 문화, 역사, 정신, 예술 등을 현재로 불러내는 운동
- 백제문화와 백제문화권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전통창조 운동

#### 2) 백제문화 세계화 캠페인

-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백제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
- 잊혀진 백제문화의 재현을 통해 후손들에게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을 제공하는 행사

### **3) 크레비즈(CreBiz) 운동**

- 개개인의 창조성(Creativity)으로 백제문화의 사업(Business)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운동

## **(2) 대백제전의 개념**

### **1) 문화와 예술**

- 백제의 문화와 예술을 테마로 하는 축제
- 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백제문화제를 새롭게 해석한 국제문화행사
- 백제 예술문화 가치를 발견, 개발한 문화 콘텐츠 메가 이벤트

### **2) 역사와 교육**

- 백제 역사 재정립과 현대적 교육이 있는 학술대회
- 역사교육 콘텐츠가 연구, 개발, 교류되는 포럼

### **3) 산업과 정신**

- 백제의 정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박람회
- 관광, 여가 시장 홍보의 장

### **4) 지역과 세계**

- 독특한 백제다움을 세계화시키는 교류
- 공주와 부여의 지역성이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되는 과정

### **(3) 대백제전을 위한 준비**

#### **1) 지역민의 숙원**

- 2003년 10월 25일부터 11월2일, 9일간 부여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백제문화관련 국제행사에 약 85%가 긍정적으로 방문의향을 말함
- 2005년 12월 3일부터 4일, 200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총 4일에 걸친 부여 방문객과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엑스포개최의 필요성과 방문의향에 대해 5점 만점에 4.09와 4.1로 높게 나타남
- 2007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주와 부여 지역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백제전 개최 타당성에 대해 5점 만점에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94.5%가 대백제전에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했음

#### **2) 충남도의 의지**

- 백제문화 세계화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옴
- 백제문화와 백제권역 발전을 위한 도차원의 “백제권 개발팀” 신설
- 백제문화 국제화 추진계획 수립 및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전문인력 파견
- (재)백제문화제 조직위원회 설립
- 백제문화제 통합 및 대백제전 준비를 위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 대백제전 개최를 위해 일본 및 중국과 문화교류 협의
- 2010 대백제전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 및 연계사업으로 2008년 40억, 2009년 40억 배정 예정

### 3) 공주시의 노력

- 대백제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대백제전 팀 구성
- 공주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을 활용한 공주역사예술도시 정비, 공주 관광단지정비사업, 고마나루 명승지역 개발 사업 등 진행하고 있음
- 체류형 관광객, 관광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숙박촌 조성

### 4) 부여군의 열망

- 백제문화 세계화와 부여지역경제의 발전, 그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위한 <부여백제역사엑스포>를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음
- 2004년 이미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부여백제역사엑스포> 타당성 조사를 마침
- 2010년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과 함께 대백제전의 개최 희망
- 대백제전과 미래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 5) 백제문화 세계화의 노력

- 52년 동안 단독 혹은 공동개최 등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개최 되던 백제문화제를 2007년 통합
- 2007년 백제문화제 통합 첫해로, 백제문화 세계화 원년의 해로 40억의 예산 배정을 통해 축제의 외형적 규모와 내형적 질을 높임
- 공주의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을 위한 노력
- 부여와 공주의 유네스코 세계역사유적지구 등재를 위한 노력
- 2010년 중국 상해박람회와 일본 평성천도 1,3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를 통한 행사의 국제화

#### **(4) 균형발전을 위한 대백제전**

##### **1) 접근성 향상**

- 공주와 부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도, 시, 군의 기초 인프라 투자

##### **2) 인프라 및 도시 정비**

- 공주와 부여 지역 외관, 숙박시설, 가로 정비 등 도시정비

##### **3)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발전**

-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백제고도의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 풍부한 인력과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와 창조산업 육성

##### **4) 충남 방문의 해**

- 충남방문객의 70%를 차지하는 해안관광객이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태로 인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충남관광 활성화와 지역민의 사기 진작 필요

#### **(5)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대백제전**

##### **1) 국제적 랜드 마크**

- 위략적 테마파크가 아닌 시대적, 역사적, 교육적 의미가 있는 랜드 마크로서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위상 정립

##### **2) 세계적 이벤트**

- 일회성, 전시성, 정치성 행사가 아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백제문화제 세계화의 전기 마련

-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교류하는 이벤트

### **3) 새로운 한류, 백제문화**

- 한류의 원류인 백제문화를 경쟁력 있는 세계문화상품으로 전환
- 해상왕국 백제의 면모, 무령왕릉, 금동대향로, 황금사리병 등 백제 문화재의 예술적 가치 드높임
- 고대부터 한중일 교류 및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한 백제의 위상 재조명
- 2007년 제53회 공주부여 통합백제문화제에는 프랑스, 일본 등 7개국 17개 단체 524명이 참여해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줌
- 중국 장수성, 일본 나라현과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협력을 약속했으며, 일본 왓소 축제와는 MOU체결

## **(6) 백제부활을 위한 대백제전**

### **1) 대백제국 선언의 해**

- 역사 속으로 잊혀진 해상왕국, 문화왕국으로서 백제의 실체 부각

### **2) 유네스코 등재 결정의 해**

- 2010년 6월, 공주와 부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결정이 됨

### **3)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의 해**

-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

### III.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 1.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 1) '2010 대백제전'대비 공주시 대백제전팀 법인화 (가칭 '2010 대백제전 사업단')

##### (1) 2010 대백제전 사업단을 법인화하여 대백제전의 준비와 행사효과 극대화

- 2010 대백제전 사업단은 법인화하여 전문 인력 확보
- 시기별로 전담인력 확대
- 2008년에는 1~3인 정도로 운영
- 2009년에는 3~5인 정도 행사 전담 (공주시 재정여건 등 감안하여 진행)
- 2010년 행사시기까지 기존 전담인원을 주축으로 부서별 지원계획
- 2009년부터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행사 담당인력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 공주시의 지원 전담부서는 관광과에서 맡되 직원 1인을 전담배치
- 민간전문가 계약직 1~2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전담팀은 행사의 성공을 위한 시기별 준비와 프로그램, 공주시 관광인프라구축 및 관광수입창출방안, 관련예산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2) 기존 공주시 사업과 연계한 ‘2010 대백제전’ 준비

- (1) 기존 공주시 사업은 공주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을 활용한 공주역사예술도시 정비, 공주관광단지정비사업, 고마나루 명승지역 개발 사업 등이 진행
  - (2) 기존 진행사업 중 ‘2010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논리 확보 후 예산 등을 중앙정부나 충청남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 (3) 충청남도가 2008년 4월 8일 확정된 지역균형발전 5개년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충청남도 서남부권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792억원 투입 예정. 국비 1,452억원, 도비 1,452억원, 시·군비 1,357억5,000만원, 민자 등 기타 531억5,200만원 예정.
    - 5년간 전체 48개 사업 추진, 4792억200만원 예정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의 성장동력사업에 투자
    -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 시군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장지원형 재정지원사업에 중점
    - 공주시는 2008년 충남도로부터 약 60억원의 예산 지원 지난 2월 확정
    - 지역균형발전 5개년 사업 예산으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지원예정
- ## 3) 체류형 관광객, 관광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신규 숙박촌 조성

## (1) 신규 숙박촌의 성격은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체험 숙박촌으로

- 전국 최초의 백제저자거리를 조성하여 백제문화체험과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성
- 사례1: 영주의 선비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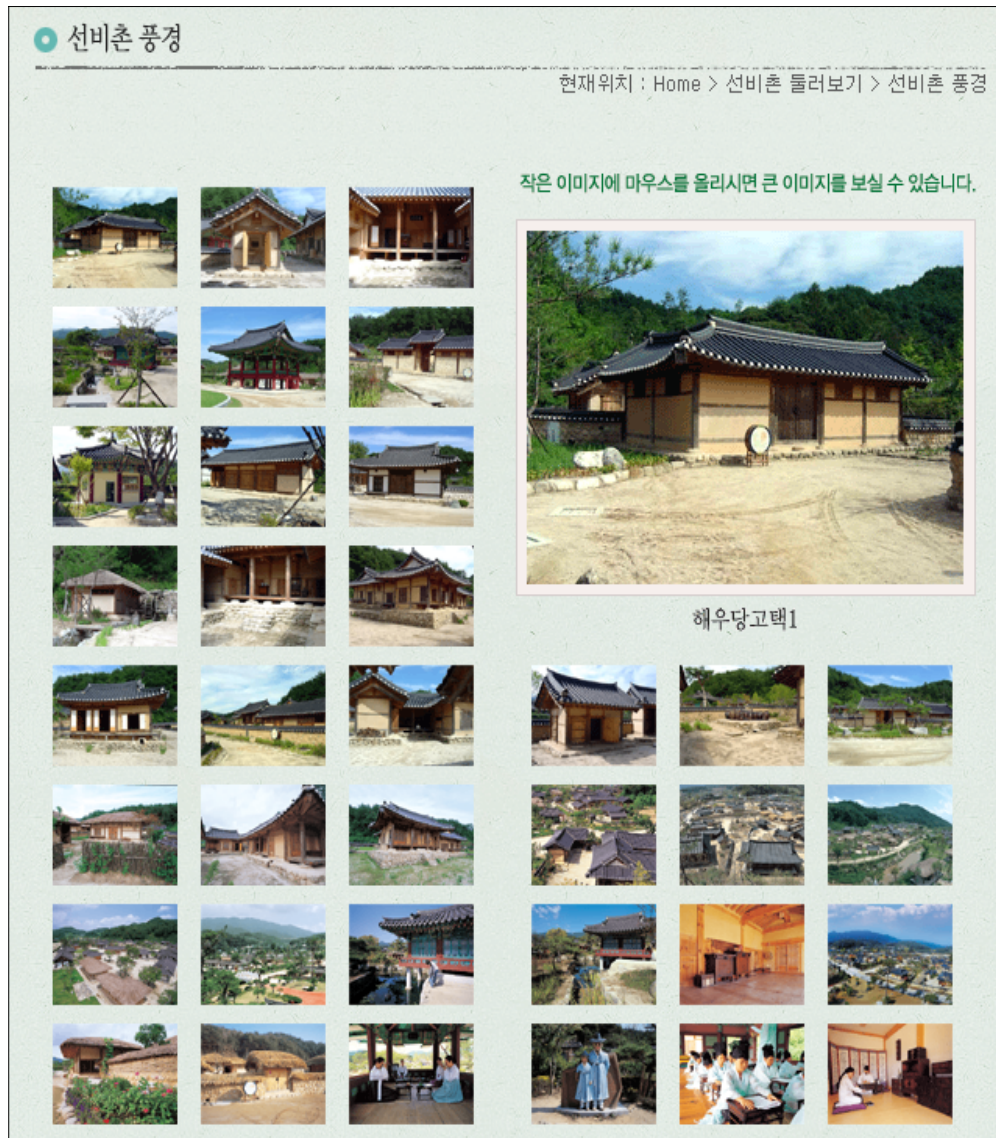
### ○ 선비촌 개요

- 영주시는 순흥면 소수서원 옆에 선비촌을 만들어 2004년 7월 개장
- 선비촌은 1만7400여평의 터에 기와집 7채, 초가 5채와 누각, 물레방아, 물레방아, 저잣거리, 대장간 등을 갖추고 있음.
- 건물은 영주시 위산면의 두암고택 등을 본 떠 만들어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냄새가 물씬 풍김

- 한옥과 초가의 20여개 방은 숙소로 개방, 관광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 갖추

- 저잣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서예, 한문, 다도와 짚신삼기체험 가능

○ 선비촌 프로그램



- 선비촌의 프로그램은 문화행사, 교육마당, 문화체험, 숙박체험, 관람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예절/인성 교육

현재위치 : Home > 교육마당 > 예절/인성 교육

### 선비촌 유교문화학교

선비촌 유교문화학교는 한국 최고의 유교 및 예절·인성 교육센터이자 유교문화와 예절문화의 배움과 보급의 장소로 인성교육을 통한 현대인들의 심신수양을 도모한다.

### 어린이 예절교실 교육프로그램

교육명	교육내용
선비촌견학	선비촌을 견학시켜 조상의 얼과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모
어린이 명심보감	어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명심보감을 통한 유교교육
전통예절	큰절, 평절연습, 한복의 명칭과 입는 법, 전통예의 습관교육
소고강습	고유악기의 종류와 장단을 숙지, 소고의 기본동작 연습
다례실습	고유의 전통차 예절법 습득
민속놀이	전통 민속놀이 유래와 놀이방식 습득
식사예절	식사와 관련된 예절을 체계적으로 교육



### <교육마당의 유교문화학교 사례>

## 한옥 숙박체험

현재위치 : Home > 선비촌 숙박체험 > 한옥 숙박체험



대청마루에 기대앉아 푸른 하늘 떠받친 첩첩 산줄기를 바라보는 여유  
비오면 문턱에 기대앉아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소리에  
묻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보세요.  
선비촌내 한옥에서의 숙박을 통하여 옛 선조들의 주거문화를 체험 할 수 있습니다.

### 체험기간

상설

### 체험내용

선비촌내 한옥에서의 숙박을 통하여 옛 선조들의 주거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 숙박체험집

- 고급형 : 해우당 고택, 인동장씨 종가



고급형 내부



영주특산물



주전부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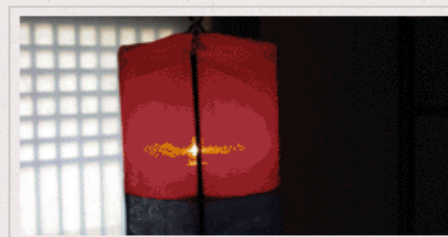
편의용품

### 체험료

- 고급형 : 4인실(140,000원)  
(아침8시30분부터 반가음식(조식)제공, 영주특산물 인견잡옷 비치(하절기), 야간 주전부리 제공  
(영주 사과, 풍기 인삼식품 등), 영주 특산물 증정  
2인실(70,000원)  
(영주 특산물 증정 제외)
- 일반형 : 4인실(70,000원), 2인실(45,000원)
- 독채형 : 김상진가(150,000원)

### 공통제공

- 윗놀이, 장기, 바둑, 승경도 놀이 등 야간 민속놀이 용품 제공
- 개인용 청사초롱 제공
- 선비혼 퍼즐 제공



<숙박체험 사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 선비촌은 영주內 외국인의 농촌체험 관광지로 급부상

<경북도 외국인 농촌체험으로 소득 늘린다>

[연합뉴스] 2008년 03월 06일(목) 오후 05:15 가 가 이메일 | 프린트 (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도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농촌체험 관광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본격 나섰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7년에 감와인, 한지와 같은 농촌지역의 독특한 향토 자원과 전통 문화 등을 체험하기 위해 '농촌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은 외국인인 2만3천390명으로 2006년의 1만7천592명보다 33%가 증가했다.

농촌체험 관광지별로는 안동(한지공장)이 1만4천360명으로 가장 많고 영주(선비촌) 4천750명, 의성(애플리즈) 2천800명, 고령(개실마을) 980명, 청도(와인터널) 5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농촌체험을 통한 농외소득을 더욱 늘리기 위해 권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명소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봄(꽃), 여름(바다), 가을(단풍), 겨울(눈)을 테마로 한 '4계절 농촌체험' 상품을 만들어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와 연계하는 등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내용>

○ 영주 선비촌의 사례로 본 공주시의 시사점

- 영주시는 조선시대의 문화를 체험 하면서 숙박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고급형은 고가의 고급숙박체험상품으로, 일반형은 비교적 저렴하게, 독채형은 펜션식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공주시는 국내 유일의 백제문화체험 숙박상품으로 운영되도록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제공
- 부여군의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
- 공주시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확장. 전체적인 조감도는 있어야 함
- 국내 방문객과 외국인 방문객을 아우르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준비



#### 4) 기존 숙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성

##### (1) 기존 숙박 인프라를 리모델링: 템플스테이

- 백제의 문화를 공주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
  - 조계종의 사찰을 활용한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가격을 대상층에 따라 다양화
  - 동학사와 갑사와 같은 조계종 계열의 사찰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조계종외 다른 종단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유도. 홍보 등 공주시에서 지원 등 고려
  - 현 템플스테이 가격은 성인 40,000원, 중고생 30,000원, 초등학생 20,000원으로 초등학생이 있는 한 가족이 방문하면 1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싼 편임.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는 가족요금(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또한 10명이하의 방문객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데 것을 적은 단위의 방문객일 경우에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있음



<갑사 템플스테이사업단의 모습>

## (2) 기존 숙박 인프라를 리모델링: 종택스테이

### ○ 종택스테이 프로그램 발굴

- 공주시에 있는 고가옥을 대상으로 종택스테이 (고가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 종가집에서 할 수 있는 예절교육, 족보, 다도 등 체험

### ○ 사례2: 안동의 종택스테이

- 안동시의 종택을 활용한 ‘종택스테이’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활용하여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
- 안동시에는 역사적인 종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택중에서 범홍동의 고성 이씨 종택, 도산면 농암종택 등 5개 고택(古宅)이 대상
- 종택에서 숙식하며 유교문화를 맛볼 수 있는 ‘종택스테이 (stay)’ 프로그램은 고가옥에서 하루밤을 보내며 지게지기, 장작패기, 나물 뜯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음
- 기존 종택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이 불편하기에 안동시는 이들 가옥에 샤워장과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
- 하회마을에는 동네를 둘러볼 수 있는 우마차도 운행.



<안동의 퇴계종택 홈페이지>



#### 퇴계종택

- ▶ 위치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도산서원 인근)
- ▶ 전화 : (054) 855 - 8332
- ▶ 홈페이지 : <http://www.yulwhsa.co.kr>
- ▶ 체험내용 : **활인심방** 수련, **성학십도** 학습, 퇴계시 감상, **종손과의 대화**, 인성 교육장, 뿌리 교육장
- ▶ 수용인원 : 200명
- ▶ 퇴계종택과 고가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원하신다면 퇴계선생의 건강 비법이었던 **활인심방(活人心方)** 수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련장소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81-2 열화(悅和)
- \* 수련기간 : 1박 2일(24시간)

#### 농암종택

- ▶ 위치 :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 전화 : (054) 843 - 1202
- ▶ 홈페이지 : <http://www.nongam.com>
- ▶ 체험내용 : 트래킹, 등산, 탁본, 다도, 천렵등

<퇴계종택과 농암종택 관광체험 프로그램>

## 5) 공주, 부여 지역 외관, 숙박시설, 가로 정비 등 도시정비

### (1) 도시경관, 조경부문

#### ○ 야경

- 조경은 최근 도시경관조성과 관광상품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
- 한국관광에 있어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밤에 할 거리가 거의 없다는 점
-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제가 야경 (夜景)의 관광상품화
- 공주시는 주요시가지와 공산성, 백제대교 (금강교) 등에 야경 조명 설치하여 관광객과 시민 유치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다리와 거리 야간경관 연출노력

#### ○ 사례3: 서울특별시 다리와 거리 활용한 야간경관 연출노력

- 서울특별시는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3년 반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양화대교, 당산대교, 광진교 등 21개 다리의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내외국인들의 눈길을 끄는 서울의 명물로 부상
- 신촌, 이태원, 영등포 등 시내 주요 거점을 야간 경관지구로 지정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
-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청계천에도 가로등, 수목등, 수중조명 등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 서울특별시는 공공시설물 뿐 아니라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야간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는 서울에 야간 관광문화를 정착시킬 계획



<올림픽대교의 야경>



<남원시의 시가 야경조성 모습>

## 6) 예산확보방안: 공모전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

### (1) 공모전을 전담할 전문 담당인력 확보

정부 공모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든 분야 총괄)을 전담하는 담당자 1인 확보, 금산군은 2007년 공모전을 통해서 약 200억원의 예산 확보

#### ○ 사례4: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개요

- 건설교통부는 2008년 2월 20일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를 거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6개, 시범마을 20개를 선정하여 금년 중 관련 예산 지원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는 충남 금산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제주시·전남 여수시·경기 과천시·광주광역시 북구·전북 무주군 등 6개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
- 이들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충남 금산군에 18억원, 제주시에 15억원, 나머지 4개 지자체에 각 13억원씩 총 85억원이 지원

- 시범도시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이 비교적 우수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시범도시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획비용 지원금을 사업별로 3억원씩 18억원을 지급
- 시범도시의 경쟁률: 7.8 : 1(47개 신청사업 중 6개 선정)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이번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
- 「시범도시」사업을 통해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
- 사례5: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사업 (시범마을) 개요
  - 시범마을은 부산·경기 각 3곳, 서울·대전·광주·경북 각 2곳씩, 대구·인천·강원·충북·전남·전북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2억원씩 차등 지원된다.
  - 「시범마을」사업을 통해서는 주민이 동(洞)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
  -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금까지의 관이 주도하고 시가지 팽창 위주로 수립·추진되던 도시계획이 주민 주도 또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하에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선정된 시범도시 사업과 예산지원액

지자체	사업명	예산 지원액
충남 금산	소통과 어울림의 중부권 문화배움터 만들기 -금산 다락원 기능 확충 사업-	18억원
제주 제주	多문화를 포용하는, 어디에서도 배움이 있는 교육도시	15억원
전남 여수	바다가 예쁜 美景 여수만들기	각13억원
경기 과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대응 도시조성	
광주 북구	도심속 「天·地·人」 문화소통길	
전북 무주	생애.ing 행복실감도시, 무주	

<표 2> 선정된 계획비용도시 사업 (예산지원액 3억원 균등)

지자체	사업명
경남 창원	생태탐방 자전거 도로 조성
광주 동구	21C New-Town 생태적 가로환경 조성 사업
경남 거제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 육성을 위한 지세포만 해양관광거점지역 개발
경남 진해	진해시 서부권 도시 재정비를 위한 벚꽃 Art Fair City 조성
전남 영암	청정자연과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Green 영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경북 포항	해양경관을 고려한 북부해수욕장 커뮤니티 공간 조성 -Coastfront & Sunlight(바다와 빛) 공간 조성

<표 3> 선정된 시범마을 사업 (예산지원액 1~2억 차등 지급)

지자체	사업명
전북 전주시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2단계사업
부산 금정구	역사와 생태 되살림을 통한 산상마을 만들기
대구 북구	주민참여형 친환경 수변공원만들기 -침산동 두물머리습지 재활력 프로젝트
인천 부평구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광주 광산구	첨단 주민이 하나되는 "가족, 이웃,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경북 김천시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아파트 골목 만들기
대전 서구	"열린 공간" 정뱅이 미래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전남 순천시	기존도심 재생을 위한 천태만상 마을 만들기
광주 남구	굴뚝연기 속에 피어나는 초록감성 야생화가 있는 송암동 만들기
경북 상주시	철로변 녹색공간 조성사업
대전 중구	무수천하 전통테마마을 조성
경기 시흥시	일터, 쉼터, 놀이터로 어우러지는 매화동 호조들녘 만들기
경기 안산시	중앙동 상가거리를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충북 청주시	완충녹지 생태공원화 사업
서울 금천구	걷고 싶은 마을, 함께하는 자연
서울 마포구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살고 싶은 망원마을 만들기
부산 해운대구	복지네트워크, 자연친화 생태마을 조성
경기 수원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에코에듀빌리지' 만들기
부산 영도구	Happy 상리마을 만들기
강원 속초시	속초 청대산 녹색체험만들기 시범사업

## IV. 결론

‘2010 대백제전’은 공주시에서 특히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메가이벤트의 효과가 경제성과 지역홍보 효과임을 감안한다면 공주시는 이러한 메가이벤트 효과에 덧붙여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큰 행사들이 거쳤던 시행착오를 이번 행사에서는 줄여야 하는데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준비팀을 법인화하여 민간전문가가 행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금산인삼엑스포 행사를 운영하는데 많이 지적되었던 충남도와 지자체간의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주시에서 먼저 전담사업단이 법인화되어 구성되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체류형관광객을 위해서 조성해야 할 신규 숙박촌이나 기존 숙박인프라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메가이벤트의 취약부분중의 하나가 행사기간이 끝난 후의 행사효과의 지속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공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주시의 도시경관 정비도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경관부분 중 야경부분은 특히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제안된 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2010 대백제전’은 공주시 관광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